

###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6·4지방 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뜻을 올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 전. 현직 국회의원 20여명과 지역시장 및 관계관 그리고 안동시를 비롯 영주, 상주, 문경, 인군 경산, 영천, 경주시 등 도내 23개 시.군에서 몰려든 지지도민 1500여명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축사에는 먼저 박희태 前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가 본 권오을은 뛰어난 품성, 연설력, 풍부한 정치경력 등 갖춘 것은 모두 갖추었기에 역시 우리 대(代)를 이어 나라의 좋은 동량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고 권후보의 인물론으로 운을 폈다. 또한 “사람하나 키우기는 참 오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만큼 ‘권’ 권오을로 만드는데 여가오신 모든 분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이곳 지역구의원인 박명재(포항,남,울릉,前행정안전부장관)의원은 “권오을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경북 23개 시.군중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에 개소 해줘 포항시민을 대신해 감사” 한다며 “지지의 성원 속에 꼭 꿈을 이루어 권후보의 대박, 함께하는 이의 대박, 경북의 대박, 대한민국의 대박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철우(김천,경북도당위원장)의원은 “도내 1천여명의 당원이 지난 8월 경주남산에서 남산의 정기를 받아 새누리당의 중심이될 것을 다짐하는 단합대회를 가졌다”며 단합대회후 처음으로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권오을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기’ (氣)를 받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여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외도 이날 축사한 내빈으로는 유승민(대구동을,국회국방보외위원장)의원, 류성걸(대구동구갑,예결위원장)의원, 김재원(의성,군위,청송,당전략기획본부장)의원, 홍문표(충남예산,홍성)의원, 지역 박승호 포항시장, 우영길 경북도의정회의장 등이 축사로 참석한 지지자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권오을 후보는 인사에 앞서 김대 안동집안에서 오신 권재주 종친회장을 직접 소개드렸다. 이어 권재주 안동지역 종친회장은 권문(權門)을 대표로 “권오을 후보는 젊은 나이에 경북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인사를 하고있다. (2014.2.9 오후3시)



◇경북 23개시·군 선거사무소 개소발대식 장면

도위원을 시작으로 지역발전과 열정으로 국회3선 의원과 근대 국무사무총장직을 역임한 후 는 공부하는 정치인으로서 현재도 마포소재 ‘오늘포럼’을 통해 민생, 현실정치에 골몰하는 신념과 의지에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더 큰 정치를 할 인물이라고 역설하여, 참석후원자로 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을 후보의 인사로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이 나라 조국근대화 산업화를 이끌며 포스코를 중심으로 제철산업을 육성시켰고, 또한 새마을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라며, 선거사무실을 포항에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권후보는 이어 “우리 경북은 전국1위의 면적과 6위의 인구, 전국1위의 무역수지(323억7천만불)와 전국4위의 지역총생산(1인당 3,082만원)등 전국 어느 시.도 보다 당당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점차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실질적 도세(道稅)규모에 맞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 애들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어 통일시대, 복지시대의 견인차 역할(役輪)을 하고 우리 도(道)가 정치의 중심지로 키우는 것이 네가 도지사가 되었을 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마을, 새경북, 새누리, 새세상, 새인들을 위해 권오을이 앞장 설테니 승리의 그날까지 300만 도민 모두 손잡고 함께 가자”고 말해 후원자로 부터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권문(權門)에서는 안동에서 권계동(대중원상임부총재,북아공과회회장)부총재, 권재주(본원부총재,안동지역총친회장), 권무택(본원부총재,대영교육재단 이사장), 권영성 부총재 등과 도내 지역총친회장과 청년회대표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하여 출정개소식에 후원 격려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 권영진 前의원 “대구시장선거출마”개소식

지난 대구 매일신문(2014. 2.16-17)게재한 기사를 이를 인용, 보도한다. 권영진前 국회의원(權永楨)·52, 안동, 34世, 동정공파)이 대구혁신! 창조경제 수도건설, 새대구 새심장 선거구호를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서 개소식이 지난 2월 15일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12 립스빌딩(3층-6층)에서 권정달(3선의원 前 민정당사무총장, 현 안동권씨대종원총재), 서청원, 남경필 등 여러 실세와 중진포함 현역의원 32명과 원희룡 前의원 10여명, 원의원사 10여명과 지역의원, 대구시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서청원 의원의 축사를 통해 “대구가 매우 어렵다. 경제를 살리고 대구미래를 살릴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격려했으며, 남경필 의원은 권영진 후보는 “위기에 빠진 당을 두 번이나 살린 사람”이라며 권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을 대표해 축사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위원장은 “권후보가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찾아와 대구를 살리겠다고 했다”면서 “옛날 잘 나가던 대구로 확실히 살려내라고



◇권영진 前의원 대구시장선거출마 개소식에 국기경례를 하고 있다.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민 의원도 축사를 통해 “권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라”고 주문했으며 “주문정치 높은 경륜과 국회의원, 수도 서울의 부시장 경험을 살려 대구를 잘 구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마치고 중앙의 오랜 기반과 편안한 정치적 기회를 버리고 대구에 왔다”면서 “대구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혁신경쟁, 쇄신경쟁, 개혁경쟁을 해야 하

고 이를 통해 대구를 살리고 대구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날 개소식을 통해 권예비후보측은 “예상의 많은 현역의원이 참석함에 따라 지역정가가 적잖이 늘었을 것”이라면서 초반 기선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발로 뛰는 선거에 돌입, 현안과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 민심과 소통하는 현장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

#### 괴운칼럼

### 싱가포르를 배워야

■ 괴운 권해조

며칠 전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가보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센토사 섬으로 연결하는 새로 생긴 10차선 해저터널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를 탈레이 반도 남단 적도 밑에 위치한 646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본섬과 60여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형 국가다. 1819년 영국이 상륙하여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켰으며 2차 대전 후에 말레이시아 한 주로 편입되었다가 1965년 독립되었다. 1960년대 국민소득 200불 수준의 가난과 질병이 난무한 최빈국이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관광의 중심지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수준의 아시아 최고선진국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관유 수상은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성과를 보며 한국에 시찰왔었다. 이는 1959년부터 31년간 리관유(李光耀) 전 수상의 철권정치의 결과다. 그는 부존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가 동양적 가치관에 의한 국가개조론으로 성실을 품고 실천하고 철저한 반공과 부정부패척결로 현대식 과학도시 국가로 건설하였다. 싱가포르는 무역자유화, 외자유치를 통한 세계비즈니스 센터 유치, 외국기업에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 등으로 다국적기업 6천여개가 상주하는 무역, 금융,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클린/그린정책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공주택 무원 교육원장) : (권득용(67·민) 시장 부위원장) : 부산서구청장 : (권

행위는 별척이 있다. 공공건물이나 차량내부, 일반상점, 거리에서 흡연금지, 껌의 판매금지,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1-2천 싱가포르달러, 무단횡단보도는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 통상경제 대표부를 설치한 뒤 1975년 대사관을 개설하고 2006년 3월 한성FTA를 체결하여 현재 5위 교역국이다. 싱가포르에는 1만6천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정부유관기관 5개를 비롯하여 금융, 해운조선, 종합상사, 항공사, 건설 중공업, 정유, 전자, 일반무역 등 60여개 상사가 주재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쌍용건설이 세운 73층의 래플스시티 복합건물은 최고층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201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였던 180도 기우러진 싱가포르의 새로운 명물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건설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열대일 가로수들로 덮인 깨끗한 초록빛 도시와 아름다운 남국의 풍치를 마음껏 즐기고 변화된 싱가포르 현장을 두루 보았다. 그리고 90년도 방문 때 싱가포르 안내관료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극찬했던 생각이 났다. 이번 방문에서 리관유 전 수상의 치적과 싱가포르 국민들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싱가포르를 배워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방문에서 열대일 가로수들로 덮인 깨끗한 초록빛 도시와 아름다운 남국의 풍치를 마음껏 즐기고 변화된 싱가포르 현장을 두루 보았다. 그리고 90년도 방문 때 싱가포르 안내관료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극찬했던 생각이 났다. 이번 방문에서 리관유 전 수상의 치적과 싱가포르 국민들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싱가포르를 배워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 • 동정



▲권오을 전 국무사무총장(前 3선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하고 입법화를 촉구했다.



▲권성 언론중재위원회(73)이 27일 언론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을 사임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권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장구의 국가 측 변호인으로 선임돼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대한민국국교회(회장 권영해)는 지난 14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통일준비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시립도서관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을 찾아

올해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등을 보고받고 평생학습 시설로서 세대를 아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빈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겸직) 지난 13일자로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비상임)에 선임됐다.



▲권근술 어린이 어깨동무 이사장이 23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부회장에 선출됐다.

#### 지역단신

▲안동전동회(회장 권오찬)는 지난 19일 안동시 북문동 밀래식당에서 18명이 참석해 윤활이대회를 가졌다. 〈권혁세 기자〉

▲안동녹전면총친회(회장 권오학)는 지난 6일 권재주안동총친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권오학회장 유임되고 총무에 권기원이 선임됐다.

▲구립 지난 27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거행된 2013년 재경 안동항우회(회장 권원오) 송년의 밤 행사에 향우 1,500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 6·4 지방선거에 예비 권문(權門) 27명 출마

지난 동아일보(2014. 1. 29(수) A14면)보도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시·도의원, 구의원, 시장. 구청장, 6·4지방선거에 예비 권문 27명 출마자 명단은 다음과 인용, 전제한다.

- 인친 교육감 : (권진수(62)·전 교육감 권한대행) · 부산시장 : (권철현(67·새) 전 주일대사) · 대구시장 : (권영진(53·새)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 대전시장 : (권선택(59·민) 전 국회의원) · 울산교육감 : (권오영(68)시의원 교육의원) · 충남교육감 : (권혁

- 운(56) 순천향대 초빙 교수) · 경북도지사 : (권오을(58·새) 전 국회사무총장) · 서울강남구청장 : (권문용(71·새) 전 구청장) · 인천강화군수 : (권태형(53·민)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읍무부장) · 경기성남시장 : (권두현(65·민) 전 도 행정2부지사) · 용인시장 : (권오진(63·민)도의원) · 안양시장 : (권주홍(54·무)시의원) · 구리시장 : (권봉수(50·민) 전 시의원) · 의왕시장 : (권오규(47·새) 전 시의원) · 대전동구청장 : (권득용(67·민) 시장 부위원장) · 부산서구청장 : (권

- 철우(61·새)시의원) · 부산동래구청장 : ( 권오성 (52·새) 시의원 ) · 울산동구청장 : (권병호(52·새)시의원) · 거제시장 : (권민호(58·새)시장) · 창녕군수 : (권유관(57·새)도의원) · 거창군수 : (권문상(50·무) 변호사) · 대구동구청장 : (권기일(49·새)시의원) · 안동시장 : (권영세(62·새)시장) · 청송군수 : (권오영(61·새) 동구레미콘대표) · 영양군수 : (권영택(52·새)군수) · 장수군수 : (권건주(50·안)전 도 공무원 교육원장) · 부안군수 : (권의현(54·민)도의원) 〈편〉

### 안동능우회(陵優會) 권혁철회장 선임

2014년 안동능우회(陵優會) 정기총회가 2월 11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평화길 <청운식당>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권오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相揖禮),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 및 결산보고, 임원개선, 회칙심사,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회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가 끝나고 임원개선에

서 제4대 신입회장에 권혁철(36세, 동정공파)을, 부회장 권영택, 감사에 권오의를 각각 선임하고 신입회장이 권윤성을 사무국장으로 지명했다. 권혁철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1년간 열심히 일하겠으니 회원 여러분이 많이 도와달라”며 당부하였다. 이날 능곡회(陵谷會) 권영훈 회장과 권기춘 사무국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회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가 끝나고 임원개선에

개발대학원을 졸업, 현재 안동종합벨트 대표를 맡고 있다. 회원들은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능우회는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권문(權門)의 번영과 숭조사상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능곡회의 우대회원들이 모인 회(會)이다. 한편 능우회의 초대 회장은 권영진, 2대 회장 권영준, 3대 회장은 권혁력이 각각 역임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발기인총회 안내

안동권씨대종원은 산하에 지역총친회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상호 친목과 연례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청장년회는 대중원 정관계 7조 7항에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 전국체전을 위한 연합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청장년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장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니 안동권씨 백년대계를 위해 발기인 총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4년 3월 22일(토) 11시정각
- 장 소 : 서울역 그릴 4층(전화 02-393-3303 / 010-2240-4242)
- 참석대상 : 청장년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 \* 찾아오시는 길 : ①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출구에서 서울역매표소 대합실(2층)으로 올라와 중앙약국에서 에스컬레이터이용 4층 ②차량으로 오시는 분 : 서울역광장 택시출따라 우측 서울역으로 진입, 롯데마트 4층에 주차하고 아울렛으로 건너옴

2014. 2. 24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준비위원장 부총재 권계주